

# 보건의료 기술 이전 활성화 발판 마련

보건의료 TLO, 기술이전 195건 420억원 달성 ... 바이오&메디컬코리아 6,910억원 규모 수출 계약 체결

글\_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창의기술경영단 기업성장지원팀

올해는 보건산업의 기술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한해였다. 2013년 발족한 보건의료 TLO 협의체가 출범 3년만에 28개에서 45개로 확대되어 양적 성장이 확대된 것은 물론 2015년 기술이전 만 195건의 430억원에 달함으로써 협의체의 질적 발전을 가져왔다. 또한 2회째를 통합행사를 치른 바이오&메디컬코리아도 6,910억원의 수출계약과 함께 활발한 기술이전 상담 등이 진행됐다. 보건의료 TLO 협의체와 바이오&메디컬코리아 2015의 주요 성과를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 보건의료 TLO 기술이전 사업화 성과

2013년 발족한 보건의료 TLO 협의체(Technology Licensing Office, 기술사업화 전담조직)가 28개 기관으로 출범한지 3년만에 45개 기관으로 확대됨으로써 보건의료 R&D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이 가속화 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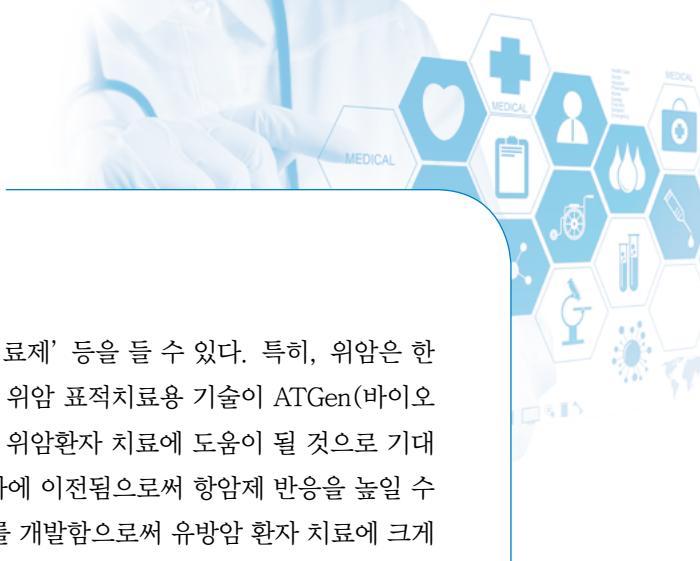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1월 9일(월) ‘보건의료 TLO 협의체 성과 교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성과 교류회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 보건의료 TLO 협의체 관련 기관장, 분과위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보건산업 연구 결과의 기술이전 사업화 성과 조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보건의료 TLO 협의체의 그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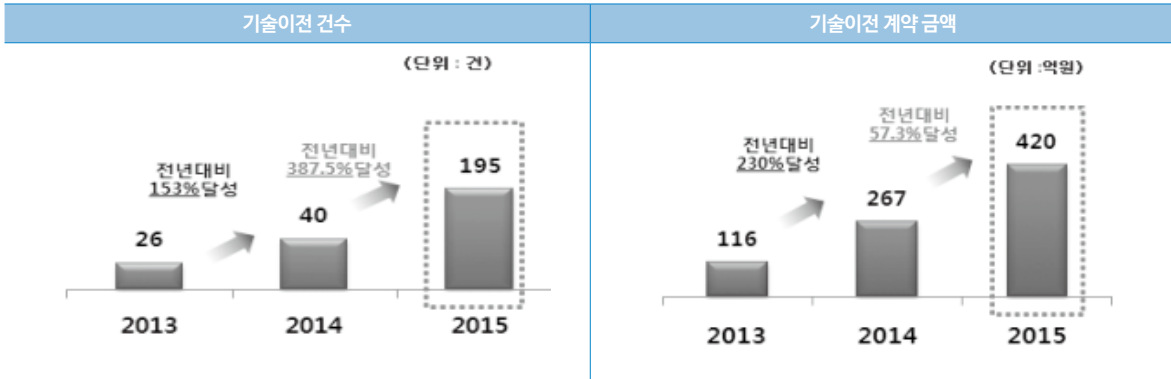
‘15년도 보건의료 TLO 협의체의 기술이전 건수(195건)는 ‘14년도(40건) 대비 387.5% 증가, 기술료 수입(420억원)은 ‘14년도(267억원) 대비 57.3% 대폭 증가됨으로써 보건의료 분야 기술사업화가 TLO 협의체를 중심으로 결실을 거두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간 정부는 보건의료 TLO를 대상으로 특허출원전략 수립, R&D 방향 제시, 사업화 전략 컨설팅, 기술파트너링, 투자유치 상담 지원 등, 보건의료 R&D 성과물이 사업화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갔다.





금년도 주요 이전 기술로는 ‘위암 표적치료용 항암제’, ‘유방암 치료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위암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암으로 연세대학교의료원 연구팀의 위암 표적치료용 기술이 ATGen(바이오기업)에 이전됨으로써 국내 신약 개발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많은 위암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주대학교병원의 ‘유방암 치료제’ 기술이 국내 모제약사에 이전됨으로써 항암제 반응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기존 약물에 비해 효율성이 높은 치료제를 개발함으로써 유방암 환자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1] 보건의료 TLO 협의체 기술이전 건수 및 계약 금액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TLO를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획기적인 시장중심의 기술사업화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글로벌 선진 기술사업화 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학·연·병으로 구성된 보건의료 TLO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고, 더불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필요한 지원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표1> 보건의료 TLO 협의체 각 기관별 주요 성과

가천길병원	A사: 복령피의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선급기술료 50백만원, 총매출액의0.05%) 외 4건
고려대학교 의료원	B사: 음압상처치료용 튜브어댑터 및 음압치료장치(선급기술료 30백만원, 총매출액의 5%(국내), 2%(국외)) 외 10건
국립암센터	C사: 방사선 치료용 레이저 정렬 장치(선급기술료 50백만원, 총매출액 10%)
서울대학교병원	D사 생검바늘 (biopsy needle) (선급기술료 25백만원, 총매출액 5%)
아주대학교병원	E사: P종양 침투성 펩타이드를 Bevacizumab 및 그 유사체에 융합하는 기술(선급기술료 1,000백만원, 총매출액 2%)외 4건
연세의료원	F사: 위암의 표적 치료용 항암 신약 조성물(선급기술료 19,000백만원, 총매출액 2.5%)외 8건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G사: 차세대 인성장 호르몬 제제 (선급기술료 11,300백만원) 외 3건
경북대학교병원	H사: Del-1단백질양성억소증을포함하는암진단 또는 예후예측용조성물 (선급기술료 100백만원) 외 7건

## 바이오&메디컬코리아 2015 성료

아시아 최대 규모의 보건의료산업 국제 컨벤션 행사인 ‘바이오&메디컬코리아 2015’가 대한민국 보건산업의 새

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과를 기록하며 4월 10일(금) 폐막했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충청북도의 공동주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올해로 10회째인 바이오코리아와 6회째를 맞은 메디컬코리아가 함께 열려, 많은 관심을 받았다. 첫 날 개막식에는 주최기관과 함께, 쿠웨이트 보건부 장관, 사우디 아라비아 보건부 차관 등 내외빈이 함께 참석하



여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행사기간에는 40개국 총 2만여명의 참관객과 6,700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 금액을 기록하였고 이 외에도 기업간 거래 및 투자 상담 금액 약 2,200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또한 중국, 러시아 4개 의료기관과 국내 6개 기관 간에 총 5건의 해외진출 계약 및 협력 양해각서 체결이 이루어졌다. 명지병원, 우리안과, CJ메디코어, 한국청년취업연구원이 각각 건강검진센터를 비롯, 안과, 치과, 피부, 성형 등 전문분야의 진료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합작 계약 및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컨퍼런스에는 백신, 항체, 줄기세포, 바이오특허, 기술사업화 전략, 해외환자유치, 의료시스템 진출전략 등 16개의 주제트랙과 신종인플루엔자사업단, 국립암센터 등 주요 유관 기관에서 개최하는 11개의 부대세션이 운영되었다.

첫 째 날 세계 최고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컴퍼니의 제약·바이오 총괄 대표인 악셀 바우어의 ‘한국 보건산업의 기회’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전 세계 보건산업 최신 정보 교류의 장인 컨퍼런스에는 국내외 200여명의 연사가 각기 다양한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특히, 보건산업의 기술과 세계 최고의 IT기술을 접목하여 의료서비스에 적용하는 단계까지의 연결과 그 발전 방향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바이오코리아와 메디컬코리아가 ‘글로벌 헬스케어, IT기술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통합 세션을 운영하는 등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었다.

국내외 주요 제약·바이오기업, 바이오클러스터, 의료기관, 연구중심병원 등 257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한 전시회에서는 기술 및 제품 거래 상담이 진행되어 참가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국내 보건산업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하여 ‘기술성장기업상장특례’ 제도를 통해 상장 또는 상장 예정인 기업들로 구성된 ‘기술성장기업관’이 운영되어 향후 기대되는 기술보유 기업들을 만나볼 수 있었고, 종근당, 보령제약,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주요 제약기업 및 의료기관의 홍보 부스가 운영되었다.



비즈니스포럼은 역대 최대 미팅 성사건수를 달성하며 참가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네트워크 확장을 지원해 주었다. 사



전 온라인 매칭 시스템을 통해 현장 미팅으로 이어지는 비즈니스포럼은 전 세계 주요 네트워크 행사들과(ex, BIO US, Bio Europe 등) 동일한 구조로 전 세계 보건산업 전문가들을 연결 해 주는 핵심 플랫폼이다. 이번 바이오&메디컬코리아 기간 동안에는 참가기업들간의 미팅이 1,100건에 이르며 전년대비 2배에 가까운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인베스트페어에서는 54개 기업간의 970억원 규모의 투자 상담이 이루어져

향후 바이오 시장의 활발한 투자거래를 촉진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경제 불황 속에 새로운 돌파구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산업은 정부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지할 수 있는 중추적인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8일과 9일 양일간 진행된 잡페어에서는 47개 제약·바이오 기업 및 관련 기관, 의료기관이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새로운 인재 고용에 나섰다. 2,228명의 참가 구직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개최된 이번 잡페어에서는 131명의 현장 채용이 예정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창업 경진대회에서는 76개의 참가팀 중 사전심사를 통과한 8개 팀이 현장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고 ‘Design 36.5팀’의 ‘휴대용 IoT 내시경(제품명:엑스코프/XCOPE)’이 1위를 차지하며 전국 ‘창업리그’에 진출한다. 또한 글로벌 제약사 취업을 꿈꾸는 많은 구직자들을 위해 국내외 제약사 현업 선배들이 ‘선배와 함께하는 취업 멘토링’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많은 조언과 상담을 해 주었다.

바이오코리아 유공포상 시상식과 메디컬코리아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포상 시상식은 각각 첫 째날 바이오코리아 10주년 환영만찬과 둘째 날 나눔의료 및 외국인환자누적 100만명 달성의 해 기념만찬에서 개최되었다. 메디컬코리아 시상식에서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하여 총 국무총리표창 4개, 보건복지부장관표창 16개, 진흥원장 표창 5개가 수여 되었으며 바이오코리아 시상식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표창 5개, 진흥원장 표창 10개가 수여 되었다.

